

Radical Disciple XIII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1. 사명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와 군중의 가장 큰 차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유는 분명하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임무를 말한다.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사명을 이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다. 치유, 회복에서 끝나면 안 된다. 다음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이다. 자기에게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첫째 계명에서 둘째 계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방향이 없는 경주가 아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해야할지 아는 것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끝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출구를 아는 것이다. 출구가 없는 인생은 결국 달려도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허무한 것이다. 태어나서 열심히 달렸는데 같은 자리라고 생각해 보라. 결국 한 발자국도 나아간 것이 아니다.

구원도 그와 같다. 그리스도인의 구원관은 죽음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다시 말해 끝을 해석하는 힘이다. 신앙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다. 왜 불안하고 두려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궁극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은 불확실함으로부터 온다. 달리는데 확신이 없다. 열심히 하는데 확신이 없다. 그래서 주로 자기암시를 한다. 자기 개발서가 이 시대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끝의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끝을 아는 사람에게 정령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분명해 진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 그 분명함이 확신이다. 그래서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과정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실 때, 그들이 어디로 가야할지를 보여주셨다. 출애굽의 끝은 가나안이었다. 막연한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존재했고 그들은 들어갔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광야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이다. 끝 그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확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안에있는 불안함은 끝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교만 (과도한 자기확신)

[고린도전서 10:12]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끝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성공 뒤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이 전부인 줄 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모른다. 젊음이 있다면 후에 늙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계절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다. 여름 뒤에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고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아둔하다. 어리석다. 권력과 힘, 성공, 젊음에 취한다. 그것이 영원할 줄 착각한다. 그것이 교만이다.

성공할수록, 힘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향기가 나야한다. 반면,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악취가 난다. 변함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권력이 종교로 기득권화 되어있다. 즉,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이다. 누리고, 정체되어 있는 자리이다.

(2) 열등감

열등감의 뿌리는 불안함이다.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다.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비전과 꿈은 거창하다. 문제는 그것이 항상 변한다. 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딪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기한다. 비전을 그려 낼 능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꿈만 꾸다. 왜 그럴까? 건강한 자아상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이루어 본 적도 없다. 열등감 있는 사람과 이야기 하면 결국에는 트라우마, 상처를 이야기 한다. 모두 남의 탓이고, 환경 탓이다.

2. 사명에 대한 오해

(1) 사명을 행위로 생각하기에 부담스러워 한다. 사명은 끝을 보는 본질의 문제이다.

(2) 사명을 비전과 혼동한다. 사명은 비전을 이루는 마음가짐이다.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비전이 바뀌면 사명도 바뀌는 것이지, 사명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명이 변한다는 것은 비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3)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이다.

[사도행전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자들은 사명 맡은 자들이었다. 말씀에서 ‘사명’, ‘마치려 함에는’ 을 함께 봐야 한다. 제자들은 사명을 경주로 여기지 않았다. 완주해야 할 임무로 여겼다.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이다. 끝이없는 경주는 사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명 맡은 자는 마지막까지 달려보아야 한다. 끝에 가야 임무가 완수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사명없이 뚫다.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 그 사람은 취미생활 하는 것이다. 신앙은 취미가 아니다. 생명이다.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군대와 같다. 교회에게 임무가 주어졌고,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4) 사명없는 교회는 변질된다.

사명을 달려야 할 의미이다. 왜 달리는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안다. 어떤 일이든지 의미를 잃을 때 그것은 변질되기 시작한다.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시점이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변질된다. 시장터로 변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다. 본질을 잃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였다. 그래서 처음 마음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야한다.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 처음 마음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확장되어도, 높아져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3. 사명 맡은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1)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코 실망하지 말라, 실망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그 누구도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 분께 메달려라.

그러면 승리를 향한 전환점을 얻게 될 것이며 문제들은 극복 될 것이다”

- 바실레아 슐링크 (Basilea M. Schlink)

(2)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힘으로 사명을 이룰 수 없다. 사명을 이루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가려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라.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구하라. 그 때마다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내가 받은 바 사명을 깊게, 넓게, 높게 확장시키실 것이다. 그릇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재적으로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이다.

(3)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다. 사명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분은 마지막 목적지인 십자가를 향해 달리셨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마음은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이다. 그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했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게 하셨다.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늘의 능력이다. 사명을 점검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검하라. 그러면 끝까지 뚫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사랑으로 사명을 완수하라.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오직 사랑의 힘이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명심하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한 사명자가 되셨다.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 일어나 달려야 한다. 완주하라. 경주가 아닌 완주자가 되자.